

<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>

| | | |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 명 | 김 지 연 | 직 급 | 보건주사보 |
| 훈 련 국 | 아르헨티나 | 훈 련 기간 | 2018. 9. 27 ~ 2019. 9. 26 |
| 훈 련 기관 | 아르헨티나 보건부 | 보 고 서 매 수 | 108 매 |
| 훈 련 과 제 | ICT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한 의료한류 협력기반 구축 | | |
| 보 고 서 제 목 | ICT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한 의료한류 협력기반 구축 방안 연구 | | |
| 내 용 요 약 | <p><제1장 서론></p> <p>○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력과 높은 IT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ICT 기반 의료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,</p> <p>○ 최근 아르헨티나 보건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추세에 힘입어, 원격보건(의료) 사업을 확대 및 전자 의무기록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음.</p> <p>○ 이에, 본 보고서에서는 아르헨티나 ICT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한 의료한류 협력기반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,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아르헨티나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</p> <p><제2장 내용></p> <p>○ 아르헨티나의 의료기기 등록 및 관세</p> <p>-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식약처(ANMAT)의 의료기기 등록 승인이 필요하며, 구비서류 간소화 대상국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, 우수업체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</p> | | |

과 비용이 소요됨. 이에, 대부분의 경우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미국, EU 등에서 자유거래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아르헨티나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.

- 아르헨티나는 수입품목에 대해 대외세(관세, 통계세)와 대내세(부가세, 추가부가세, 소득세, 매출세)를 부과하고 있으며, 대외세의 경우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내 국가에는 부과되지 않음.

○ 아르헨티나 ICT 기반 의료 시장 현황

-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ICT 시장 규모가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큰 나라로, 아르헨티나의 ICT 시장은 2008년과 2017년 기준 연 누적 2.2% 증가.

-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,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미국, 독일,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의료기기 제품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, 최근에는 중국 및 브라질 산 의료기기가 확대되는 추세.

○ 아르헨티나 보건부 관련 추진 사업

- 전자의무기록 : 아르헨티나의 대다수 기관에서는 여전히 종이를 기반으로 의료기록을 관리하고 있어,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의무기록 관리를 하고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음

- 원격보건(의료) : 아르헨티나에서는 원격의료(자문) 및 원격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, 현재 원격보건 수행기관의 수를 확대해 나가는 단계에 있음.

· 아울러, 일부 민간병원에서는 ICT기반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적용 및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
<제3장 결론>

아르헨티나 ICT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한 의료한류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,

| | |
|--|---|
| | <p>○ 첫 번째로,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ICT기반 의료시스템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차원의 박람회 개최 및 국내 기업체의 국제 박람회 참여 독려 및 지원 등을 통해, 우리나라 ICT기반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상호 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. <p>○ 두 번째로, 아르헨티나와 수출 확대를 위한 ICT기반 의료시스템 활용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 및 수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국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, 모바일을 이용한 의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 될 수 있으며, 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기업체의 프로젝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방안 검토 필요. <p>○ 세 번째로,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수입 시,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서류 간소화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르헨티나의 의료기기 등록서류 간소화 대상 국가 지정은 의료기기 생산국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 (ANMAT)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,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업자에게는 우수업체 확인증 등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 완화적 측면. <p>○ 네 번째로, 아르헨티나 수출 시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메르코수르(MERCOSUR) 간 무역협정 타결 필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무역협정 타결을 통해,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|
|--|---|